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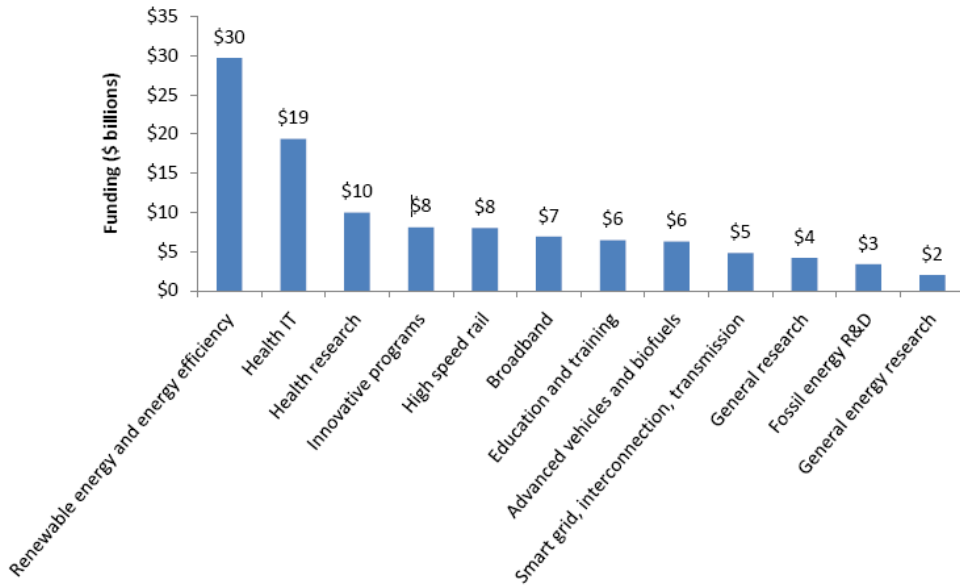
과학기술개발 및 혁신을 통한 미 경제 발전

1) 개요

최근 미 백악관이 경기부양법과 관련하여 발간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부양법(ARRA) 및 관련 예산이 다양한 부문 내 혁신 촉진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미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먼저 경기부양법이 혁신활동과 관련, 어떠한 방식으로 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밝힌 다음 크게 4가지 주요 부문별(교통, 청정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및 광대역인터넷 등 민간부문 혁신 관련, 의료) 경기부양예산 지원 현황 및 그 성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총 787십억불 예산의 경기부양법(ARRA)는 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경기부양노력 중 하나로, 이 중 100십억불 이상의 예산이 혁신 및 변형적 연구 지원 관련 프로그램에 배정되어있다. 주요 부문별 경기부양예산 규모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Note: EERE and Smart Grid figures estimate impact of Title 17 rescission. Source: OMB analysis

<그림 1> 미 경기부양법(ARRA) 내 과학기술개발 및 혁신 관련 예산

한편, 앞서 분류된 4가지 주요 부문별로는 첫 번째로 교통 분야와 관련, 교통 및 수송 현대화 (고성능 자동차 관련 기술 및 고속철도 포함) 노력을 들 수 있는바, 2009년부터 경기부양법(ARRA)은 2십억불 규모의 예산을 고성능 배터리 및 전기운전부품제조 등에 투자해오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연방 투자를 바탕으로 2012년까지 미국 내 30여개 공장이 전세계 고성능 자동차배터리 생산량의 20퍼센트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9-2013년 20개의 고성능배터리 생산공장이 경기부양법 예산의 지원을 받아 설립,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부양법 외에도 고성능자동차제조사업(ATVM: Advanced Technology Vehicles Manufacturing program)이 2.4십억불의 예산을 정부저리융자의 형태로 Fisker, Nissan, Tesla 등에 지원, 세계 최초의 전기자동차 대량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에 힘쓰고 있다.

청정에너지와 관련, 경기부양법(ARRA)은 특히 풍력 및 태양력 관련 투자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바, 미국 내 다양한 중/대규모 태양발전프로젝트 지원 및 세제혜택, 정부보증대출프로그램 등이 미국 내 각지에서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과 관련, 경기부양법(ARRA)은 특히 풍력에너지 생산 관련 부품 및 인프라 기반 마련 및 확충에 집중하고 있으며, 3십억불의 관련 예산을 들여 30여개 주 내 100여개 풍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Section 1603 program)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민간부문 혁신플랫폼 구축과 관련한 경기부양법의 예산지원으로는 광대역인터넷, 스마트그리드, 보건부문 IT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으며, 광대역 인터넷의 경우 상무부의 관련 예산 4.4십억불 외에 추가로 경기부양법(ARRA)에서 2.5십억불의 예산을 지원, 인터넷 보급 확대 및 품질 향상, 비용 저렴화, 미국 내 산간도서 지역의 인터넷 활용 확산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 경기부양법(ARRA)은 스마트그리드 사업과 관련, 현재 사용 중인 8백만여개의 스마트 계측기 외에 추가로 18백만개의 새로운 스마트 계측기를 설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및 미 에너지 시스템 안전성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보건부문 IT 투자와 관련, 20십억불의 예산이 전자차트, e-처방, e-care, 지역보건 의료사업 등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의료연구와 관련, 경기부양법(ARRA)은 NIH의 인

류질병 완화 및 신약개발, 새로운 치료법 마련 등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3) 시사점

미 오바마 정부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에서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경기부양 예산의 13% 해당하는 100조원의 예산을 과학기술에 지원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의료, IT, 전기차 및 스마트그리드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동시에 주춤하고 있는 선도적인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과학기술분야의 지원으로 단기적인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나 국가 경쟁력의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이고 경제 전반적인 회복 효과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으로써도 과학기술 지원 확대를 통한 우수 인력 양성 및 원천기술개발로 장기적인 발전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출처: 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uploads/Recovery_Act_Innovation.pdf